

의료분쟁조정법 헌법소원을 위한 성금 모금 안내문

산부인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선생님께,

선생님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①헌법소원 및 ②국회를 통한 법 개정작업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TFT는 헌법소원 진행을 위한 변호인단 선임을 위하여 국내 주요 로펌들을 접촉하였으며 이제 최종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5월 초부터 헌법소원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 액수의 소송비용이 필요한 상태이나 안타깝게도 현재 모금된 비용은 약 5천 만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헌법소원은 법안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만 하는 바, 7월 8일 이전에 헌법소원을 진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한 성금마련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산부인과학회 발전모임에서 각 수련병원의 주임과장회의를 통하여 각 대학의 교수님들은 100구좌, 전공의 선생님들은 10구좌를 의무적으로 모금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금 운동에 참여하신 인원 수는 362명에 불과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금모금의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병원도 있는 반면, 의대 학생들까지 성금을 모아서 보내주신 병원도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및 시행보다 이에 반응하지 않는 저희들의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부인과는 의료분쟁조정법뿐만 아니라, 포괄수가제 및 초음파 급여화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

라 지속되는 전공의 지원율 감소 문제 등 저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멀고도 험난한 길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료분쟁조정법 46조 헌법소원을 위한 성금모음은 단순히 소송에 필요한 비용마련의 차원을 넘어서 교수든, 전공의든, 개원의든 산부인대에 몸담고 있는 저희들이 이 멀고 험난한 길을 같이 헤쳐나가고 단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가 의료분쟁조정법 46조 헌법소원 및 이를 통한 법개정 작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분만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10년, 20년 뒤 산부인대에 몸 담을 우리 산부인과 후배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디 성금모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뜻을 한 분도 빠짐없이 전달하여 주시고 헌법소원을 위한 성금 모금에 신속하게 동참하시어 이 땅에 산부인과의 지키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단합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예 금 주 대한산부인과학회
은 행 명 우리은행
계좌번호 1005-202-030070
방 법 1구좌 2,862원
(복지부 주장에 따른 산부인과의 분만 1건당 분담금)

※ 1구좌에서 100구좌까지 원하시는 액수를 상기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한다!!

이 땅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오늘 6월7일(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문의약품인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접하고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바이다.

1. 응급피임약의 오남용은 여성들의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지 못한다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 미국,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중국 등에서 낙태율이 줄어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사전 피임을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특히 청소년의 임신과 성병 유병율이 높아졌다는 해외의 연구 결과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정상적인 피임율이 매우 낮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응급피임약마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다면 정상적인 피임율의 향상은 더욱 어려워지고 낙태 예방 정책의 실패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해외의 보고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만연한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 과연 응급피임약의 보급확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정책 사항인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들을 정상적인 피임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응급피임약을 남용시켜 낙태와 성병의 위험성을 더 노출시켜야 하겠는가?

1. 응급피임약의 오남용은 여성들의 생식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응급피임약이란 계획임신을 위한 정상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하던 중 불가피하게 실패한 경우나 강간 등의 피치 못할 경우 응급으로 사용하는 고용량의 호르몬(일반 피임약의 10~15배)으로 만들어진 응급약이다. 정상적인 피임 없이 이를 필요 시마다 오용하면 그 효과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남용으로 예기치 않은 부작용 및 합병증을 야기하게 된다.

한 월경주기에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그 부작용이 심각하며 정상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출혈(31%), 오심, 복통 등의 부작용 발현의 빈도가 높고, 무엇보다 임신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의 발현빈도가 높은(피임실패율 15~40%) 의약품이다.

또한 약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부정출혈을 월경으로 오해하여 임신 진단이 늦어질 수 있고, 자궁외임신을 늦게 발견하면 난관파열 등으로 복강내 출혈을 초래하게 되어 복용 후 세심한 관리가 없다면 다음 임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국민 건강의 피해는 절대 편의성 보다 우선될 수 없

며, 그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1. 응급피임약의 편리한 사용 증가가 불러오는 것은 사전피임 소홀로 인한 무책임한 성문화 확산이다

피임효과가 확실한 정상적인 피임약 복용율이 유럽과 미국에서는 15~40%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 2.5%에 불과하며, 응급피임약의 복용율이 오히려 그 두 배나 되는 5.6%에 이르고 있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최소한 정상적인 피임약의 복용율이 유럽이나 미국 수준이 된 이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 나라의 현실에는 시기상조임이 명백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 노출이 증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올바른 성의식과 정상적인 피임 문화를 정착시켜 불법낙태를 근절하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여성의 건강과 낙태 문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나라가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고 낙태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응급피임약 사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피임율을 높이고 책임 있는 성문화를 정착하는 것이다.**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정상적인 피임약 복용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기상조이며, 이는 피임약의 복용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고 피임 및 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정착된 이후 다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응급피임약의 효과를 과신하지 말고 계획 임신을 위한 정상 피임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으며, **더 이상 응급약인 응급피임약을 상용약으로 인식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을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여성 건강을 최전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는 회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피임 교육 및 상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올바른 피임 정책을 펼쳐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2. 6. 7.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학회소식

제 47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 성료 (2012.5.18.~19)

‘제 47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이 5/18(금)~19일(토) 양일간 경주현대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연수강좌에는 신입 및 4년차 전공의 뿐 아니라 학회 회원, 관련기관 인사 등 총 4백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강좌 내용으로는 모체태아의학, 부인종양학, 생식내분비학, 일반부인과학 분야의 최신 지견과 처치 방법 등이 소개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체태아의학> 분야에서는 김민형(관동의대) 교수가 “전자 태아 심박동 감시 장치와 관련해 ACOG[1]에서 2009~2010년에 발표한 진통 중 전자 태아 심박동 감시에 대한 용어와 해석 및 처치에 대한 지침”을 소개했다.

김종운(전남의대) 교수는 “다태임신은 모든 임신의 1~2%를 차지하며, 약 98%는 쌍태임신이다. 하지만 최근 배란유도제 사용, 보조생식술의 사용, 가임 여성의 고령화로 다태임신이 증가하는 추세다. 다태임신의 발생과정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용모막성에 따라 위험성과 예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조현진(인제의대) 교수가 ‘임신 중 약물 복용의 상담’, 심재운(울산의대) 교수가 ‘임신 여성에서 흔히 동반되는 내분비 질환의 처치’ 등에 대한 내용도 발표했다.

<부인종양학> 분야에서는 이재관(고려의대) 교수가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의 최신 지견’이라는 주제로 “현재 자궁경부암의 병인론이 거의 밝혀져 있고 진단법이 충분히 개발되고 있으며, 치료에 관한 새로운 시도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괄목할만한 효과 있으리라고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법의 종류 등을 소개했다.

김성훈(연세의대) 교수는 ‘생식력 보존을 위한 자궁내막암의 처치’라는 주제를 통해 “자궁내막암은 개발도상국 보다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며 미국의 경우 매년 40,000명 이상의 신환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부인암인데, 현재 보존 치료의 선택 기준과 치료 용량, 치료 기간, 추적 관찰에 관한 명확한 지침은 없는 실정

이라고 언급하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궁내막암의 보존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밖에도 전섭(순천향의대) 교수가 ‘임신 중 부인암의 처치’를 발표했다.

또한 <생식내분비학> 분야에서 이사라(이화의대) 교수는 골다공증과 관련해 “골다공증의 평가에는 병력 청취와 신체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권고사항(비타민 D 섭취, 체중부하운동, 낙상방지, 금연, 알코올 억제 등)과 약물치료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홍열(고신(의대) 교수는 “암환자가 폐경기를 맞이 했을 경우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 임상적, 역학적 결과들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암환자의 호르몬 처방에 대한 지침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김미란(아주의대) 교수가 ‘외래에서 시행하는 불임 치료의 실제’를 발표했다.

<일반부인과학> 분야에서 김민정(가톨릭의대) 교수는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기진단이 가장 중요하며 유방 질환을 이해하고 선별검사를 환자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명재(서울의대) 교수는 “골반장기탈출증은 여성의 30~50%에서 발생하며 50세 이상 여성의 절반 정도가 가지고 있는 매우 흔한 부인과 질환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서구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의료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술적 처치 등의 치료법에 대해 고찰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향아(강원의대) 교수가 ‘비정상자궁출혈의 처치’를 발표했다.

한편 연수강좌를 앞두고 전날인 5월17일(목)에는 최근 산부인과 관련 중요사안들과 관련해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실 주임교수 및 자학회장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의 주된 내용으로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포괄수가 강제적용 대비와 관련된 경과보고 등 산부인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연수강좌 만찬에서는 스피드메탈 그룹 휘모리가 공연하여 한국적인 색채와 미가 내재된 ‘휘모리’라는 그룹이름에 걸맞게 한국인 정서에 부합하는 멜로디 스피드 메탈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제 3회 자궁경부암 예방 퍼플리본 캠페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올해 자궁경부암 예방주간(5/13~19일)을 맞아 5월1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 3회 퍼플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닥터카페' 행사를 펼쳤다.

퍼플리본 캠페인은 자궁경부암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해마다 5월 셋째 주에 펼치는 행사다. 또 닥터카페 행사는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는 20~30대 젊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여성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해주는 것이다.

본 학회는 올해의 경우 전문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산부인과 전문의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여성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검진 서약 및 퀴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닥터카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퍼플리본 트위터(@pprb)도 6월 중순(5/16~6/15)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보험소식

1. 포괄수가 강제적용 대비 TFT 7차 회의가 6월 13일 (수) 개최되었다. 이는 지난 6월 7일 개최된 포괄수가협의회(정부정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편 'DRG 중증도 세분화를 위한 상병 및 수가 시뮬레이션 작업을 위한 별도 회의'가 준비되고 있다.
2. 2012년 상대가치 전면개정 작업을 위한 '임상전문가 조정패널 회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되었다(2012.5.29). 이번 회의는 건강보험 전체 수가 중 처치·기능검사 및 검체·영상 검사 유형들을 관련 진료과목 및 관련 직종들이 함께 모여 검토하는 자리였다. 검토내용은·장비 가동률·장비 유지보수비용 [영상검사 유형 관련]·장비유지보수비 관련 직접비용 구축 현황·진단검사 의학과 자동화장비 정책 조정내역 및 동시검사 건수 조정 경과·유형별 직접비용 세부 검토결과(인건비, 장비비, 재료비)등이다. 이는 2011년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세부전공별 보험위원 및 펠로우들이 함께 모여 기존에 구축한 자료를 검토 수정 후 심평원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CPEP위원은 이근영 교수(보험위원회 위원장. 한림의대)가 논의에 참여 하고 있다.
3. 신의료기술에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받은 (1)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태아경하 레이저를 이용한 혈관문합 응고술 (2) 단일 융모막성 다태임신에 실시하는 고주파 열응고를 이용한 체대 폐색술 두 가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었고 고시를 앞두고 있다.

제 7차 법제위원회

일시: 2012. 5.21(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외

제 6차 심사위원회

일시: 2012. 5.21(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료사안 심사

제 8차 의료분쟁조정법 TFT

일시: 2012. 5.25(금) 오후 7시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료분쟁조정법 헌법소원 관련 의견

제 2차 청소년성건강위원회

일시: 2012. 5.31(목) 오후 7시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응급피임약 전환 관련 의견

제 1차 수련위원회

일시: 2012. 6.4(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인턴제도 폐지에 따른 수련안 마련 지도전문 교육 지침 마련

제 9차 의료분쟁조정법 TFT

일시: 2012. 6. 7(목) 오후 7시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료분쟁조정법 헌법소원 관련 의견

제 3차 청소년성건강위원회

일시: 2012. 6.8(금) 오후 7시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응급피임약 전환 관련 의견

제 6차 포괄수가 강제적용 대비 TFT

일시: 2012. 6.13(수) 오후 7시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DRG 정책결정 내용 공유 및 대응방향 논의

제 7차 개원특임위원회

일시: 2012. 6.14(목) 오후 7시30분

장소: 팔래스호텔 지하 세미나 룸

안건: 의료분쟁조정법 대한 향후 대책 및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대책논의 등

YS Chang Award 기부자명단

AOFOG 주최로 2011년 9월 Taipei에서 개최된 제 22회 AOCOG (아세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 학술대회)에서 제 1회 시상식이 거행된 YS Chang Award (장윤석 상)의 재원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내에 설치된 YS Chang Foundation (장윤석 장학재단)에서 책임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장학재단에 기금을 기부한 분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윤석	1억원
임진호	5000 만원
우복희	600 만원
배병주	100 만원
배도환	100 만원
김중덕	100 만원
이홍균	100 만원
(故)이진용	100 만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6월 15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김 선 행
YS Chang Foundation 이사장

행사소식

대한산부인과학회 유방연구회 심화과정(6기/1차)

일자: 2012. 6. 17(일)

장소: 학회 사무국

제 1차 중장년 여성건강 연수강좌

일자: 2012. 9. 9(일)

장소: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

The 17th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일자: 2012. 10. 4(목)

장소: Grand Hilton Seoul, Convention Center

제 98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일자: 2012. 10. 4(목) ~ 6(토)

장소: 그랜드힐튼서울 호텔, 컨벤션센터

2012 FIGO World Congress

일자: 2012. 10. 7(일) ~ 12(금)

장소: Fiera di Roma, Rome, Italy

<외국학회/국제학회 명예회원 또는 고문 등 추대현황 파악을 위한 협조 요청>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외국학회/국제학회에서 명예회원 혹은 고문(예컨대 대한산부인과 학회의 Honorary Fellow 나 고문 혹은 AOFOG의 Fellow 등)으로 추대된 회원님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협조를 요청 드리오니, 해당되는 회원님께서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신 후 학회 사무국으로 내용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E-mail: office@ksog.org, Fax: 02-3445-2440).

| 다 음 |

성 명 (국문 및 영문)	
외국학회/국제학회 명칭(국문 및 영문)	
추대시점	
추대자격명칭(예컨대 Honorary Fellow, Advisor 혹은 Fellow 등)	
해당 외국학회/국제학회 연락처	
1) Address :	
2) Telephone:	
3) FAX:	
4) E-mail:	